

<KDF 글로벌 포럼>

온라인 혐오/차별 표현 현황

시민사회의 대응

박한희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만연한 혐오

2



혐오, 2010년대 이후

3

혐오 관련 연관어 분포



[2006.5.21 - 201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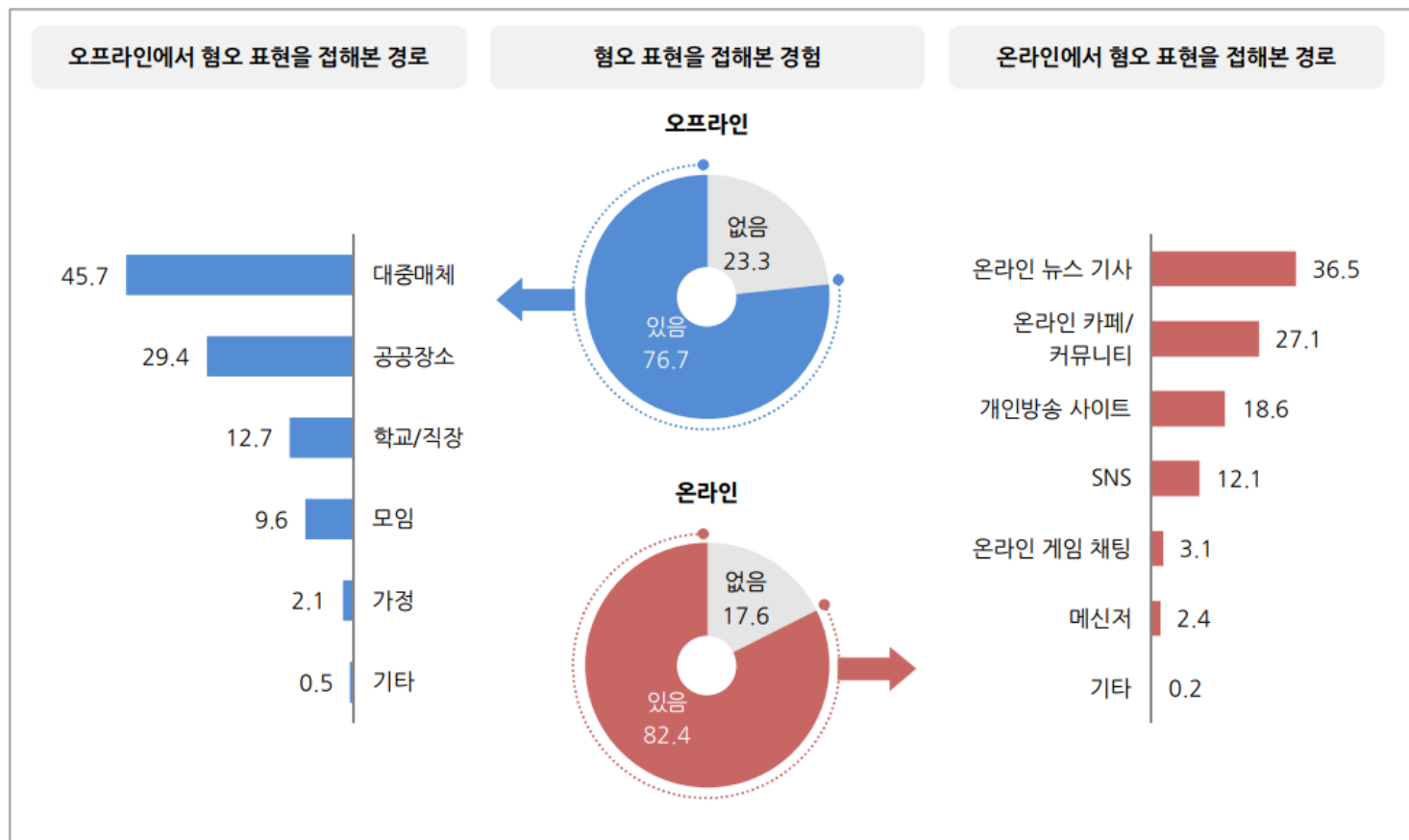


[2011.5.21 - 2016.5.20]

자료: 빅카인즈 시스템

혐오표현의 현황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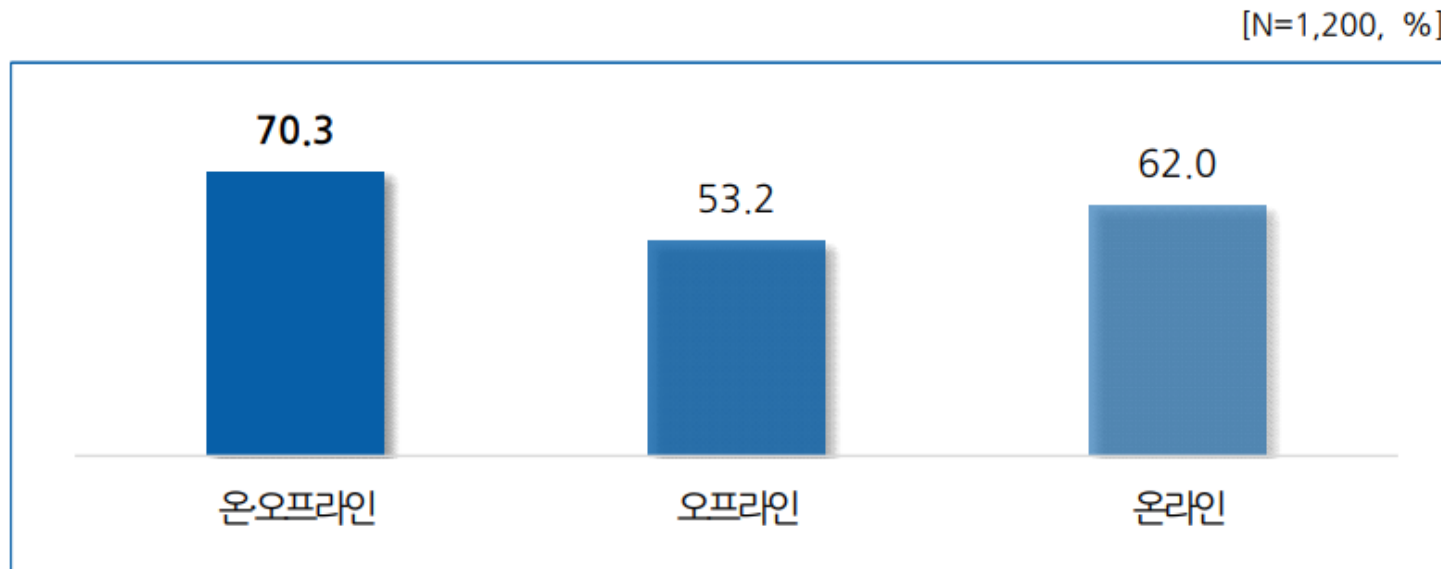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혐오표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혐오표현의 현황

- 조사대상 70.3%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혐오표현 경험 있음
- 온라인(62.0%)이 오프라인 실생활(53.2%)에 비해 높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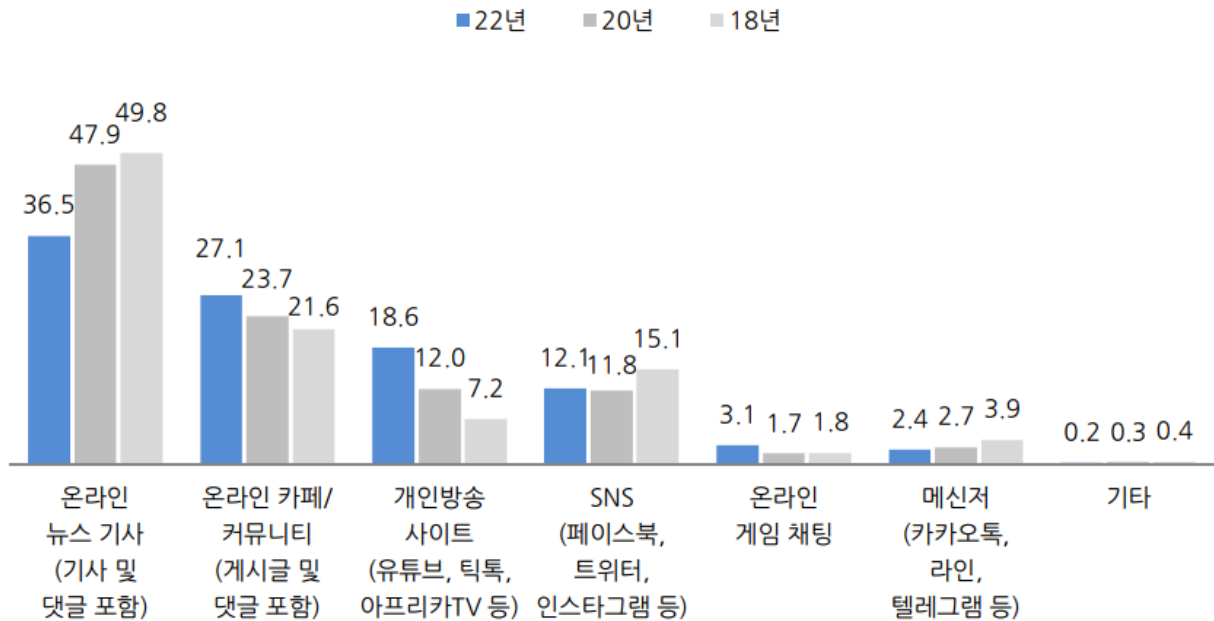
그림 II-1 | 혐오표현 경험 여부



〈 그림 3-16 〉 [온라인] 혐오표현 많이 접해본 경로

문) 그럼, 온라인 상에서 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접한 곳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단위 : %, n=997)



온라인 혐오표현

〈 그림 3-17 〉 [온라인] 혐오표현 많이 접해본 경험 - 종합

문) 귀하는 온라인 상에서 다음 대상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얼마나 접하셨습니까?

(단위 : %, n=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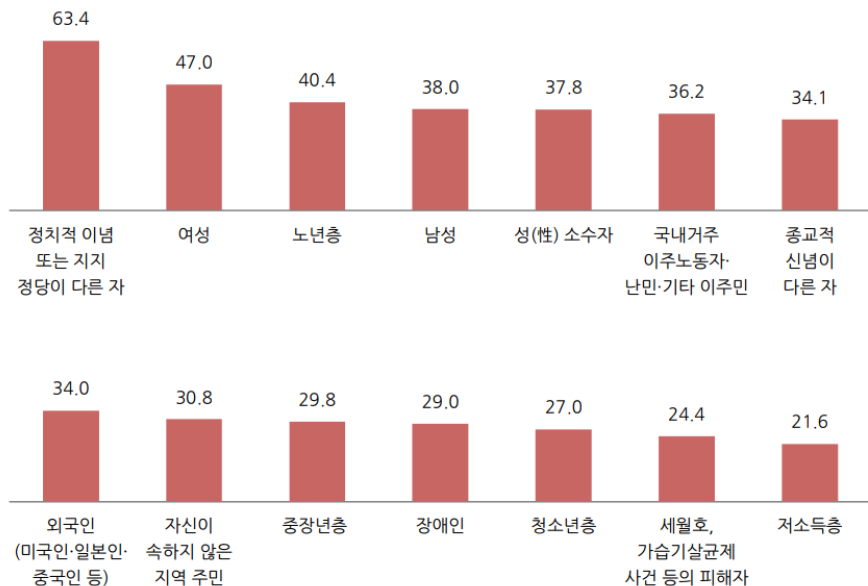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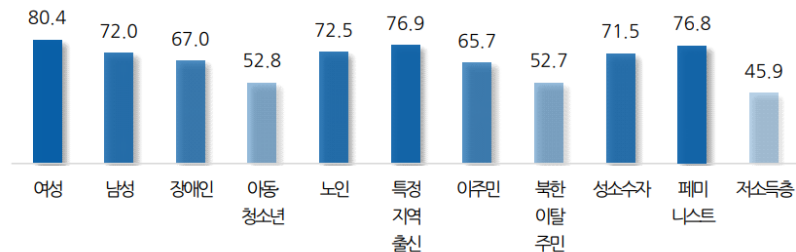


그림 Ⅲ-6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대상

[N: 1,200, 단위: %]



▲ 인권위 조사

◀ 문체부 조사

혐오표현의 효과

8

■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이후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73.5%

그림 II-7 |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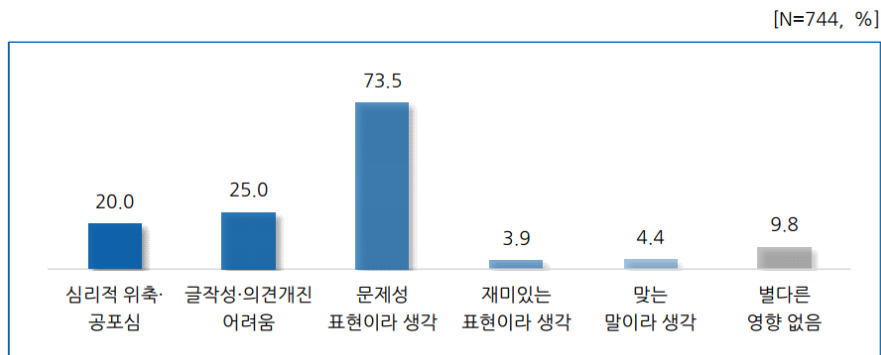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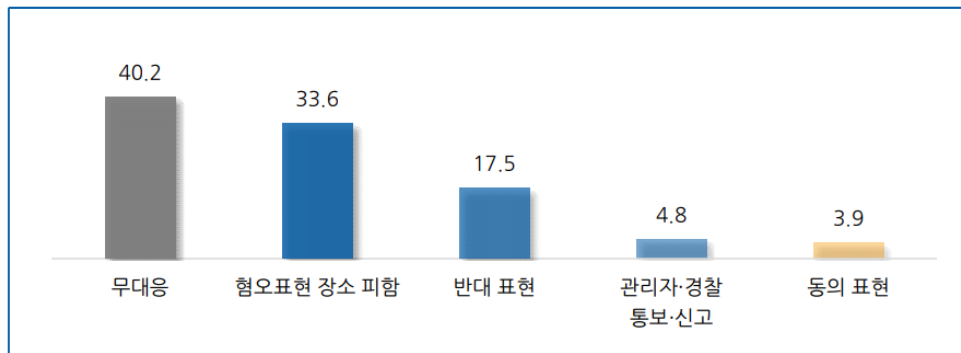


그림 II-8 |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N=7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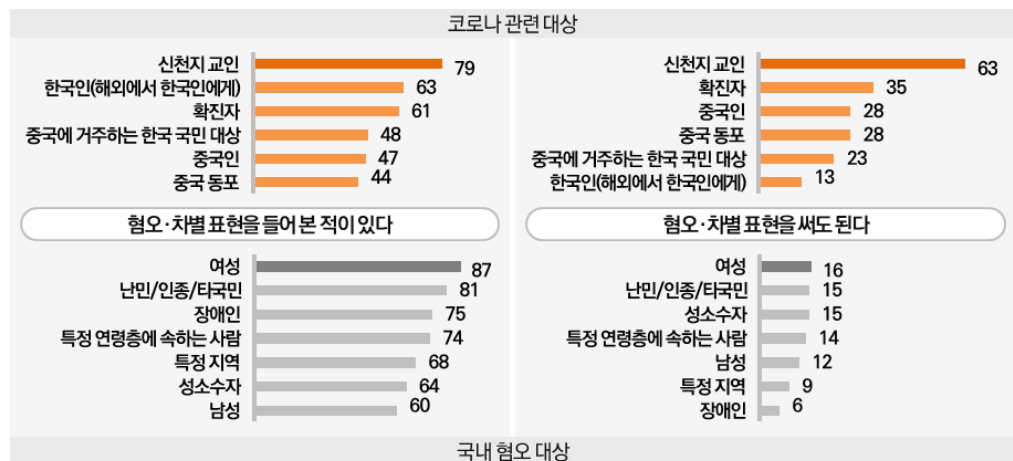
- 혐오표현을 접할 때 느끼는 위축감, 공포심, 불쾌감
-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가 부당함을 느낌
- 공론자에서의 배제, 공론장의 왜곡

시민사회의 대응 ①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코로나 관련 혐오표현 다수가 경험, 코로나 혐오 옳지 않지만 신천지는 예외

(단위 : %)



질문: 귀하께서는 다음 대상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고: '들어본 적 있다' 응답만 제시

표본 수: 1,000명

조사시기: 2020.02.28~03.02

질문: 귀하께서는 이러한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표현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

응답만 제시

표본 수: 1,000명

조사시기: 2020.02.28~03.0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oopinon.co.kr)

- 코로나 19 팬데믹이 초래한 혐오
- 특정 지역 / 중국에 대한 혐오에서 점차 감염인,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확산
- 2020년 5월 이태원 집단감염과 성소수자 혐오

시민사회의 대응 ①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10

시사 > 전체기사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클럽 세곳 2000여명 방문 지역사회 2차 감염 우려

입력 : 2020-05-07 07:21 / 수정 : 2020-05-07 08:43



<국민일보 기사>

HOME > 종합

이태원 코로나로 불거진 에이즈환자 관리 '허점'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05.13 20:04

충북 방문자 중 한명 검사 과정에서 에이즈 감염 확인
본인 거부한 검진기록 익명 처리 ... 전출입 관리 안돼
보건당국, 지역사회 전파 난망 ... 개인 신분보호 급급



<충청타임즈 기사>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혐오언론 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국민일보 본사 앞에서 **오후 2시**부터
마무리 기자회견 : **오후 5시 프레스센터** 앞

<혐오언론 방역지도>

1. 국민일보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국민일보 빌딩)
2. 뉴시스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 머니투데이 (종로구 창계천로 11 창계한국빌딩)
4. 언론중재위원회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주최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언론브리핑]

1. 혐오 광고는 국민일보의 꿈수다
2. 질병의 위기 속 언론의 역할은
황색저널의 혐오선동 대신 예방의 조력자가 되는 것
3. 이제는 우리가 짬방을 이야기해야 할 때

2020년 5월 22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 성소수자/HIV 인권단체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결성,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 광고
- 혐오 언론에 대한 언론브리핑, 혐오 언론 릴레이 기자회견

시민사회의 대응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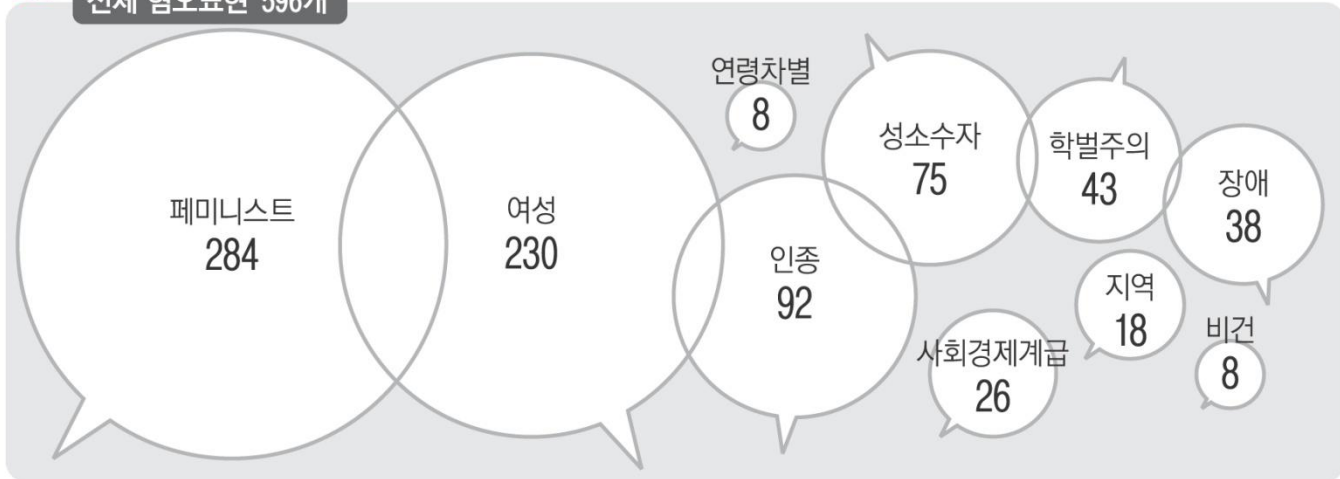
유니브페미 F5 프로젝트



에브리타임 게시글의 혐오표현 유형

전체 혐오표현 596개

단위: 개, 자료: 유니브페미, 중복 집계(한 게시물에 2개 이상 혐오 표현이 있는 경우)
기간 및 대상: (1)2020년 2월3일~12일 11개 대학 (2) 2020년 5월14일~9월10일 25개 대학



에브리타임은 대학별로 개설돼 강의 시간표 관리와 강의 후기 서비스,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는 대학생 전용 플랫폼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398개 대학 452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유니브페미가 수집한 596개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뚜렷한 혐오 경향이 발견됐다. 페미니스트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은 각각 284개와 230개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 경향신문, 2020. 10. 5. 에브리타임 '혐오'가 업로드됐다

시민사회의 대응 ②

유니브페미 F5 프로젝트

13



유니브페미는 <캠퍼스 혐오표현 새로고침 가이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표현에 대해 입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에서는 처벌보다는 각 주체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한다. (정보통신망법에서 혐오표현게시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근거 마련,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 혐오표현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사회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인 형성적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알리, 2021. 6. 20. 유니브페미, 혐오로 얼룩지지 않은 공론장을 찾아서

시민사회의 대응 ③

차별금지법제정연대 Q&A

14

“우리 모두의 광장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평등한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 모든 참여자는 발언 시 반말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와 비인간동물들을 차별하거나 대상화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타인에게 신체접촉 및 성희롱 등을 하지 않습니다.
- 특히, 집회 발언자와 진행자는 자신의 발언의 무게와 영향력을 인식하여 말과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입니다.
- 모두의 열린 광장을 위해, 수어통역과 휠체어존(무대 인근)이 운영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요!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에게만 해결을 맡기지 않고 주변에서 적극 대처하며 주최 측에 즉시 문제를 알립니다

성추행·성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핸드폰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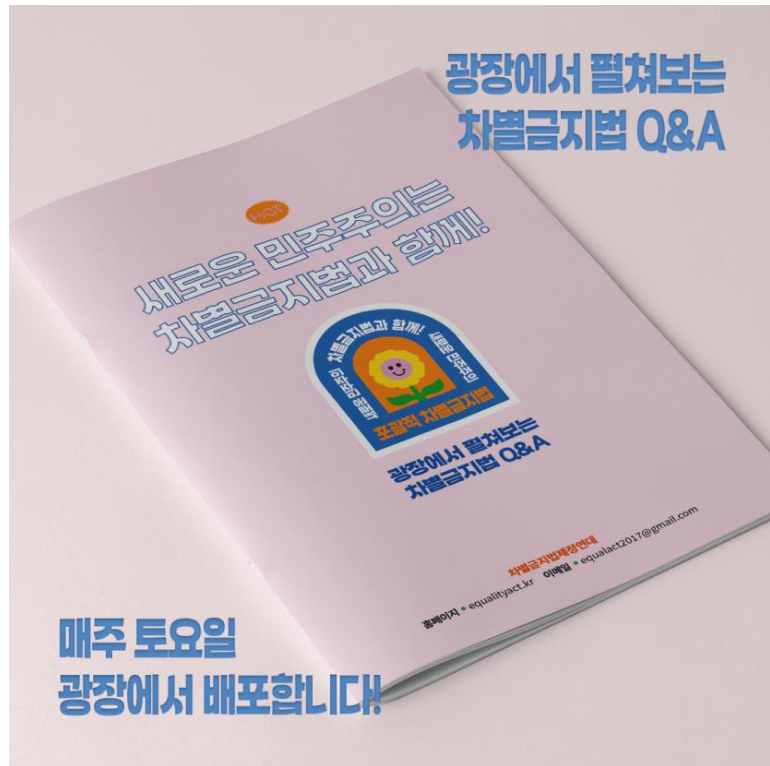
팔로우하기

집회에서 바로 옆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을 잔뜩 들었다. 마스크를 내리며 "저도 트젠이에요."라고 하니 흘려보며 "아, 예~"라고 하셨다. 트젠은 빠지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니 앞으로는 집회에 다닐 때 더 티내고 다니면서 더 불편하게 해드려야겠다.

2025년 01월 04일 · 3:08 오후 · 조회수 19.3천회

453 재게시물 14 인용 474 마음에 들어요 15 북마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Q&A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소수자에게 물리해지는 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트랜스젠더가 여성시설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특정 성별로 꾸미고 속여 ‘침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세상에서 트랜스젠더들은 학교나 직장과 같은 곳에서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하거나,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차별과 폭력을 겪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가 더이상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은 일단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평등하고 안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는 법입니다. 여성과 소수자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나서고 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오해와 두려움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누며,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혐오를 막으려면

16



- 국가의 혐오에 대한 단호한 입장 / 대응을 위한 법체계의 부재
- 정치인 / 공적 인물의 혐오표현이 온라인에서 재확산
- 혐오와 차별을 '당연한 것, 문제없는 것'으로 여기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함

차별금지법

- 다양한 양상의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
- 소수자가 경험하는 혐오차별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의 제공
- 혐오에 가만 있지 않고 책무를 다하겠다는 국가적인 선언
- 특정 개인/집단만을 위한 법이 아닌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고 복합차별에 대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18

